

“믿음은 얼굴에 나타나야 한다”

사도행전 14:1-10

지난주부터 Half-Year 특별새벽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벽기도는 한국이 시작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전통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또한 제사 역시 새벽에 드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새벽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 시간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시간이라고 믿었습니다.

시편 46 편 5 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시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앗수르가 185,000 명을 동원하여 남유다를 공격하고 결국은 예루살렘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때 남유다의 왕인 히스기야는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아침 일찍 나가보니 포위하고 있던 수십만명의 사람들이 모두 시체가 되어 죽어 있었습니다. 이 시편의 구절은, 새벽시간에 위기에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도 새벽을 깨운 사람입니다. 그는 60 년 이상을 새벽 4 시에 일어나서 5 시부터 기도와 설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체질이 개선되지 못해서입니다. 늦게 일어나는 게으른 습관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일찍 잠자리에 들고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 잠을 많이 자는 습관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잠을 자는 것. 밥을 먹는 것. 여가를 즐기는 것. 휴식을 취하는 것. 이 모든 것은 그 자체를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생산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들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깨어있는 삶은 곧 기도하는 삶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벧전 5:8)

성도는 왜 깨어 있어야 할까요?

우리가 잠들기를 기다리는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둑은 물건을 훔치기 위해 주인이 잠들기만을 기다립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도 우리가 잠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되어 성공하면 오히려 잠들기 쉽습니다. 좋은 집을 사서 이사가고 난 후 잠드는 교인이 있습니다.

잠든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잠이 듭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영적으로 깨어있어 마귀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기도의 효력을 믿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에 의해 비시다아 안디옥에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그들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행 14:1)

그들은 다른 것을 전하지 않고 복음만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지는 한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며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죄의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외쳤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환경에 따라 그 인생이 흔들립니다. 환경이 나쁘면 자기 인생도 불행해 집니다. 그러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좋은 환경 때문에 좋아하지도 않고 나쁜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성공에 대해 자만하지 않고 실패에 대해 좌절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의 생애의 목표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는 자기가 가진 모든 명예와 지식, 재물을 배설물과도 같이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3 장에는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구원해주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은 분토와 같이 여긴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 장에는 ‘십자가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핍박이나 어려움도 장차 받을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 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롬 8:18)

그러므로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전부여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회 생활을 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신앙활동은 '균형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균형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모두 달랐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행 14:2)

같은 시간에 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한쪽은 은혜를 받고 다른 한쪽은 오히려 나쁜 마음을 품습니다. 같은 말씀에도 우리의 반응은 전혀 다른 두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말씀을 거부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행 14:2)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중심에는 불순종의 영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느냐, 성품이 좋은가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녀가 '순종의 영'을 지니고 있느냐 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도행전 14 장에는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설교하다가 그 걷지 못하는 사람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걷지 못했던 사람을 단번에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줍니다. 과연, 어떻게 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1. 바울이 그를 주목했습니다.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받을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행 14:9)

예배드릴 때도 성도들 중에 설교자가 주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를 열심히 경청하는 사람을 보면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눈이 마주치고 서로가 주목하는 순간에 성령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우리의 주인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분을 주목할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나눔의 시간

1. 우리가 살아오면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라고 생각되어졌던 사람이 있었다면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와 함께 그 경험을 이야기해 봅시다.
2. 오늘 말씀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1 절)도 있고 그 말씀을 거부했던 사람(2 절)도 있습니다. 그 두 그룹이 나뉘어지게 된 결정적인 기준은 무엇이였을까요?
3.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이 있기 전에 전제되었던 두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였을까요? 또 한 그 두가지 과정안에 내게 도전을 되는 말씀은 어떤 부분인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4. 오늘은 '믿음은 얼굴에 드러난다' 는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인생을 거울에 비추어 본다면, 내 얼굴에는 무엇이 드러날까요?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드는 결단이나 다짐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봅시다.

2. 바울은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을 그 사람에게서 찾았습니다.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받을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행 14:9)

바울은 그 사람이 설교를 듣는 모습 속에서 믿음과 확신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느꼈습니다. 설교를 듣는 자리에 모두 앉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이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 한절 한절이 그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 꿈틀거리며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악한 영이 도저히 자리 잡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와 불안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굴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말씀이 심겨지는 것이 보입니다.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 보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것이 얼굴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받을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행 14:9)

구원 받을 만한 믿음, 즉 말씀을 통한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 얼굴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바울도 확신을 얻게 되어 이렇게 선포합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행 14:10)

믿음의 얼굴을 보자, 바울에게도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과 믿음이 만나게 되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믿음의 말씀이 증거될 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설교자는 믿음으로 증거해야 하고, 성도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학자이고 지성인입니다. 그는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말 한마디로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7 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